

陳士鐸의 臟腑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柄直·尹暢烈

陳士鐸的臟腑五行病理及雜病五行病理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柄直·尹暢烈

通過研究陳士鐸的臟腑五行病理及雜病五行病理的運用研究，得出以下結論：

陳士鐸認為盡管肺金克肝木，但是若肝中之火旺盛，則肺無法克肝且致肝火克土使脾土受損，從而使脾胃無法生金而致肺金更加衰弱，肺不能生水而水無法克火，導致上中下三焦之火均過旺。他認為肝喜疏泄，倘若鬱滯會使其克脾胃，脾胃受克則土克水，而腎受損無法生木，使肝鬱更甚心火無法化生，且肺亦無法克木。此時，應以解鬱法來治療。他認為雖然土克水，但是土生水與金生水之關係更為密切，而肺與腎尤為密切且有相生的關係，故只有腎中之水充足，方可水火既濟。

他認為心為君火是有形之火，可用水克之，而腎中之火為無形之火，且可養水。他認為命門之火可生脾土，但若過旺則無法生脾土反而克土。此時，與其直接補腎水，不如補肺金使金生水，此為補水的根本之法。陳士鐸在說明五臟的病理機制時認為，五臟之火過旺則會使相生關係變成相克關係，而適宜的火則能維持正常的相生關係，且即使火不足亦可維持相生。陳士鐸認為除了外感，幾乎所有的雜病都以臟腑五行的相生，相克，以及相關的關係為中心來說明了其病理，這一點成為了其學術思想的重要特點。

關鍵詞：陳士鐸，臟腑五行病理，雜病五行病理。

I. 緒論

陳士鐸의 字는 敬之요 號는 遠公이며 別號는 朱華子 또는 蓮公이라 불렀으며 浙江省 山陰(지금의 紹興市)사람이다. 그는 明나라 天啓年間에 태어나서 淸나라 康熙年間까지 80여세를 살은

淸나라 초기의 의학자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20여권의 의서를 저술하였는데, 현존하는 서적으로는 『外經微言』, 『脈訣闡微』, 『本草新編』, 『石室秘錄』, 『辨證玉函』, 『辨證奇聞』, 『辨證錄』, 『洞天奧旨』 등의 8種이 있다.

그의 학술사상의 특징은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을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辨證에 活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280-2601.

전까지의 陰陽五行은 相生과 相克에 있어 기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혹 그 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臟腑에 적용하여 자유자재로 운용한 사람은 거의 드물었다. 陳士鏗은 오장, 육부 사이에 五行의 相生과 相克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五臟의 病理를 설명하는데 活用하였는데 이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그만의 독특한 학술적 특징이 된다. 그는 또한 雜病에 있어서도 五行의 이론을 運用하여 病理를 闡發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消渴, 夢遺, 咳嗽, 翻胃, 陰痿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五行理論으로 五臟의 病理를 解釋함.

陳士鏗은 『外經微言』에서 『肺金篇』, 『肝木篇』, 『腎水篇』, 『心火篇』, 『脾土篇』 등의 篇을 두어서 陰陽五行說의 相生相克을 運用하여 五臟 사이의 病理를 闡發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肺金의 病理

陳士鏗은 『外經微言·肺金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問曰 肺_金也. 脾胃_土也. 土宜生金_也 而 有時不能生金者_{謂何}. 岐伯曰 脾胃土旺而肺金強_也 脾胃土衰而肺金弱_也 又何疑乎. 然而脾胃之_氣 太旺_也 反非肺金所喜者_{由于土中火氣之過盛也} 土爲肺金之母. 火爲肺金之賊_也 生變爲克_也 烏乎宜乎. 少師曰 金爲火克_也 宜避火矣_也 何又親火乎. 岐伯曰 肺近火則金氣之柔者必銷矣. 然肺離火則金氣之頑者必折矣. 所貴_也 微火以通薰肺也. 故土中無火_也 不能生肺金之氣_也 而土中多火_也 亦不能生肺金之氣也. 所以烈火_也 爲肺之所畏_也 微火_也 爲肺之所喜_也 少師公曰 善_也 請問金木之

生克_也이다. 岐伯曰 肺金이 制肝木之旺은 理也_也 而 肝中火盛_也 則金受火炎_也 肺失清肅之令矣_也 避火不暇_也 敢制肝木乎_也 卽木氣空虛_也 已不畏肺金之刑_也 況金受火制_也 則肺金之氣必哀_也 肝木之火愈旺_也 勢必橫行無忌_也 侵伐脾胃之土_也 所謂欺子弱而凌母強也_也 肺之母家受敵_也 御木賊之強橫_也 奚能顧金子之困窮_也 肺失化源_也 益加弱矣_也 肺弱_也 欲其下生腎水_也 難矣_也 水無金生_也 則水不能制火_也 母論上焦之火焚燒_也 而中焦之火_也 亦隨之更熾_也 甚且下焦之火_也 亦挾水沸騰矣_也 少師曰 何肺金之召火也_也 岐伯曰 肺金은 嬌臟也_也 位居各臟腑之上_也 火性上炎_也 不發則已_也 發則諸火應之_也 此肺金之所以獨受厥害也_也 少師曰 肺爲嬌臟_也 曷禁諸火之威逼乎_也 金破不鳴_也 斷難免矣_也 何以自免于禍乎_也 岐伯曰 仍賴腎子之水以救之_也 是以 肺腎相親은 更倍于土金之相愛_也 以土生金而金難生土_也 肺生腎而腎能生肺_也 晝夜之間에 肺腎之氣는 實彼此往來_也 兩相通而兩相益也_也 少師曰 金得水以解炎_也 敬聞命矣_也 然金有時而不爲火者_{何謂乎} 岐伯曰 此論其變也_也 少師曰 請盡言之_也 岐伯曰 火燦金者_{烈火也} 火氣自微_也 何以燦金_也 非惟不畏火_也 且侮火矣_也 火難制金_也 則金氣日旺_也 肺成頑金_也 過剛而不可犯_也 于是 肅殺之氣必來伐木_也 肝受金刑_也 力難生火_也 火勢轉衰_也 變爲寒_也 火奚足畏乎_也 然而火過寒_也 無溫氣以生土_也 土又何以生金_也 久之 火寒而金亦寒矣_也 少師曰 善_也 請問金化爲水而水不生木者_{又何謂乎} 岐伯曰 水不生木_也 豈金反生木乎_也 水不生木者_也 金受火融之水也_也 眞水生木而融化之_也 水克木矣_也 少師曰 善_也 1)

(소사가 묻기를 때는 金이고 脾胃는 土니 土는 意당 金을 生하되 때때로 金을 生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脾胃의 土가 왕성하면 肺金

1) 柳長華, 陳士鏗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2.

이 강하고 비위의 토가 쇠약하면 肺金이 약한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러나 비위의 氣가 아주 왕성하되 도리어 肺金이 기빠하지 않는 것은 土中の 火氣가 지나치게 盛하기 때문이다. 土는 肺金의 어미오 火는 肺金을 해치는 것이니 相生이 변해서 相克이 되는 것이 어찌 마땅하다 하리오.

소사가 문기를 金은 火가 克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火를 피해야 하거늘 어찌 또 火를 가까이 하는가.

기백이 이르기를 肺가 火를 가까이 하면 金氣의 부드러운 것이 반드시 사라지고 그렇다고 火를 떠나면 金氣의 완고한 것이 반드시 다른 것을 꺾나니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미약한 火로 肺를 훈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土속에 火가 없으면 肺金之氣를 생하지 못하고 土속에 火가 많더라도 또한 肺金之氣를 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烈火는 肺가 두려워하는 바요 微火는 肺가 좋아 하는 바가 된다.

소사가 문기를 훌륭합니다. 金木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묻잡오이다.

기백이 이르기를 肺金이 肝木의 왕성함을 제압하는 것은 정상이치이지만 肝속에 火가 왕성하면 金이 火炎을 받아 肺가 清肅之命을 잃어버리니 火를 피할 겨를도 없는데 감히 肝木을 제압하겠는가. 즉 木氣가 空虛하더라도 이미 肺金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金이 火刑을 받는다면 肺金之氣가 반드시 쇠약해지고 肝木의 火가 더욱 왕성하면 형제가 반드시 횡행하고 거리낌이 없어 脾胃之土를 侵伐하니 이른바 자식의 弱함(肺)을 기만하고 어미의 강함(脾胃)을 능멸하는 것이다. 肺의 어머니 집이 해침을 받아 木의 도적의 강한 횡포를 막고 있는데 어찌 능히 金 자식의 끈궁함을 돌보리오. 肺가 化源을 잃으면 더욱 더 약해지게 된다. 肺가 弱해지면 腎水를 생하고자 하나 어려워진다. 水는 金이 생해 줌이 없으면 水가 火를 제압하지 못해서 上焦의 火가 타는 것은 불론이요 中焦의 火도 또한 따라서 더욱 불타게 되고 심하면 下焦의 火도 또

한 물을 끼고서 끓어오르게 된다.

소사가 문기를 어찌서 肺金이 火를 부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肺金은 嬌臟이다. 위치가 모든 장부의 꼭대기에 있고 불의 성질은 위로 타오르니 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불이 발생하기만 하면 모든 불이 옹하니 이것이 肺金이 홀로 그 피해를 받는 이유이다.

소사가 문기를 肺가 嬌臟이 되니 어떻게 모든 火의 위협과 펄박을 금지시키겠습니까. 金이 깨져서 기능이 파괴되면 단연코 면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스스로 재앙을 면하겠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여전히 腎 아들 水에 의뢰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肺와 腎의 친함은 土金의 사랑(친함)보다도 두 배가되니 土生金하지만 金은 土를 생하기 어려우나 肺生腎하고 腎은 능히 肺를 생한다. 밤낮에 걸쳐 肺腎의 氣는 사실상 서로 왕래하여 두 장이 서로 통하고 서로 유익하게 한다.

소사가 문기를 金이 水를 얻어서 불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잘 가르침을 들었거니와 그러나 金이 때로 火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찌서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 變을 논한 것이다.

소사가 문기를 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金을 녹이는 것은 烈火이고 火氣가 미약하다면 어찌 金을 녹일 수 있리오. 火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火를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火가 金을 제압하기 어려우면 金氣가 날로 왕성해져서 肺가 완고한 金이 되니 지나치게 강해서 범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속살지기가 반드시 와서 伐木을 하고 肝이 金의 형벌을 받으면 火를 생하기 어려워지고 火의 세력이 약해지면 변해서 寒하게 되니 火를 어찌 두려워하리오. 그러므로 火가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따뜻한 기운이 없어서 土를 생하지 못하니 土가 어찌 金을 생하리오. 오래되면 火가 寒하게 됨에 金도 역시 寒하게 된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金이 化하여 水가 되되 水가 木을 생하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

인지를 묻잡노이다.

기백이 이르기를 수가 木을 생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金이 生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리오. 수가 生木을 하지 못하는 것은 金이 火에 녹은 수이기 때문이다. 眞水는 木을 생하지만 불에 녹아서 변화되면 수가 木을 克하게 된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脾胃土가 生肺金하지만 土속에 火氣가 많으면 오히려 肺金을 해치니 生中有克의 원리이다. 그렇다고 土속에 火가 전혀 없어도 肺를 생하지 못하니 脾胃속에 火가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정상적으로 肺金이 肝木을 克하지만 肝속에 火가 왕성하면 肺가 肝을 克하지 못하고 肝火가 克土하여 土가 피해를 받고 다시 脾胃가 生肺하지 못하여 肺金이 더욱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肺가 腎水를 생하지 못해 水克火를 못해 上·中·下焦가 모두 불타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陳士鐸은 肺가 火의 피해를 특히 받는 것에 대해 肺는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여 炎上하는 火氣에게 제일 피해가 큼을 말하였고 火를 제압하는 방법은 腎水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微火는 克金하지 못하고 侮를 당하고 이때 肺의 肅殺之氣는 伐木을 하고 伐木을 당하면 心火를 생하지 못해 金이 더욱 火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陳士鐸은 한 장기의 盛衰는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4개의 臟이 입체적으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肝木의 病理

陳士鐸은 『外經微言·肝木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曰 肝屬木에 木非水不養이라 故腎爲肝之母也니 腎衰則木不旺矣니 是肝木之虛는 皆腎水之涸也라 然而肝木之虛가 不全責腎水之衰者는 何故오 岐伯曰 此肝木自郁也라 木喜疏泄이니 遇風寒之邪와 拂抑

之事면 肝輒氣郁不舒하고 肝郁하면 必下克脾胃하고 制土有力하면 則木氣自傷하야 勢必求濟腎水오 水生木而 郁氣未解면 反助克土之橫이오 土怒水助하야 轉來克水면 肝不受腎之益하고 腎且得土之損하야 未有不病者也라 腎既病矣면 自難滋肝木之枯오 肝無水養이면 其郁更甚하고 郁甚而 克土愈力하야 脾胃受傷하야 氣難轉輸면 必求救于 心火라 心火因肝木之郁하야 全不顧心하고 心失化源하면 何能生脾胃之土乎아 于是에 憐土子之受傷이나 不敢咎肝母之過逆하고 反嗔肺金不制肝木하야 乃出其火而 克肺니 肺無土氣之生하고 復有心火之克이면 則肺金難以自存이오 聽肝木之逆이나 無能相制矣라 少師曰 木無金制면 宜木氣之舒矣어늘 何以仍郁也오 岐伯曰 木性曲直하야 必得金制有成이이늘 今金弱木強하면 則肝寡于畏하야 任郁之性以自肆하야 土(金)無可克하고 水無可養하야 火無可助니 于是에 木空受焚矣니 此木無金制而 愈郁也라 所以로 治肝에 必解郁爲先이니 郁解而 肝其自平이니 何至克土리오 土無木克이면 則脾胃之氣가 自易升騰하야 自必忘克腎水니 轉生肺金矣라 肺金이 得脾胃二土之氣면 則金氣自旺하야 令行清肅하니 腎水無匱乏之憂오 且 金強制水하야 木無過旺하야 肝氣平矣라 少師曰 肝氣不平에 可以直折之乎아 岐伯曰 肝氣最惡者는 郁也오 其次則惡不平이니 不平之極은 卽郁之極也라 故平肝에 尤尙解郁이라 少師曰 其故何也오 岐伯曰 肝氣不平은 肝中之火過旺也니 肝火過旺은 由肝木之塞也라 外閉內焚하면 非燥土之氣면 卽耗心之血矣라 夫火旺은 宜爲心之所喜나 然溫火生心하고 烈火逼心이라 所以로 火盛之極엔 可暫用寒涼以瀉肝火나 郁之極엔 宜兼用舒泄以平肝也라 少師曰 善하노이니²⁾

(소사가 묻기를 肝이 木에 속함에 木은 수가 아니면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腎은 肝의 어미가 되니 腎이 쇠약해지면 木이 왕성해지지 않나니 肝木의 허함은 모두 腎水가 말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肝木의 허한 것이 전적으로 腎水가

2) 柳長華, 상계서, p. 23.

쇠약함에 책임이 없는 것은 어찌서인가.

기백이 이르기를 이것은 肝木이 울체되었기 때문이다. 木은 疏泄을 좋아하나 風寒의 邪氣와 거슬리고 억압된 일을 만나면 肝이 곧장 氣가 울체되어 퍼지지 않게 되고 肝이 울체 되면 반드시 아래로 脾胃를 克하고 土를 제압하는데 힘을 쓰면 木氣가 저절로 손상되어 형세가 반드시 腎水에게 구제를 요청하고 水生木하지만 울체된 氣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도리어 土를 克하는 방자함만 도와주게 되고 土가 水의 도움에 화가 나서 土克水를 하면 肝이 腎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腎도 土의 손상을 받아 病을 받게 된다. 腎이 이미 병들면 肝木의 마른 것을 자양하기 어렵고 肝이 水의 자양을 받지 못하면 그 울체된 것이 더욱 심해지고 울체가 심해지면 土를 克하는 것이 더욱 강해져서 脾胃가 손상을 받아 氣가 轉輸되는 것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心火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心火는 肝木의 울체로 인해 心을 돌보지 못하고 心火가 화생하는 근원을 잃어버리면 어찌 능히 脾胃의 土를 생할 수 있겠는가. 이에 土 자식의 손상 받음을 불쌍히 여기나 감히 肝母의 지나친 橫逆을 허물하지 못하고 도리어 肺金이 肝木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성내어 火를 出하여 肺를 克해 肺는 土氣의 생함도 없고 다시 心火의 克을 받으면 肺金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고 肝木이 逆을 받으나 제압하지를 못한다.

소사가 묻기를 木이 金의 제압이 없으면 의당 木氣는 풀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서 여전히 鬱滯되는가.

기백이 이르기를 나무의 성질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여 반드시 金의 제압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金이 약하고 木이 강하면 肝이 두려워함이 적어 울체된 성질이 제멋대로 방자해져서 金은 克하지도 못하고 水는 자양하지도 못하고 火는 土를 도와줌이 없으니 이에 木은 그저 불타게 되니 이것 木이 金의 제압을 받지 않고 더욱 울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肝을 치료할 때 반드시 울체를 푸는 것이 우선이니 울체

가 풀어짐에 肝氣가 저절로 고르게 되니 어찌 土를 克함에 이르리오. 土가 木의 克을 받지 않으면 脾胃之氣가 스스로 쉽게 올라가서 반드시 腎水를 克함을 잊고 도리어 肺金을 생하게 될 것이다. 肺金이 脾胃之土의 氣를 얻으면 金氣가 저절로 왕성해져서 清肅之金을 행하니 腎水는 부족해질 근심이 없고 또한 金이 강해서 木을 제압하니 木이 지나치게 왕성함이 없어서 肝氣가 고르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肝氣가 고르지 않음에 곧장 꺾을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肝氣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울체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不平하는 것을 싫어하니 不平이 극에 이르면 곧 울체가 극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肝에 더욱 解郁을 숭상해야 한다.

소사가 묻기를 그 까닭은 어찌서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肝氣가 不平한 것은 肝속의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기 때문이며 肝火가 지나치게 왕성한 것은 肝木이 막혔기 때문이다. 밖이 막히고 안이 불타면 土氣를 녹이지 않으면 心血을 모손시킨다. 火가 왕성해지는 것은 마땅히 心이 좋아하는 것이나 그렇지만 溫火는 心을 생하고 烈火는 心을 꺾박한다. 그러므로 火盛之極엔 잠시 寒冷한 약을 써서 肝火를 瀉할 것이지만 郁之極엔 마땅히 舒法과 泄法을 겸용해서 平肝해야 한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肝을 中心으로 관련된 腎, 心, 脾胃, 肺의 상관관계를 論하고 있는데 다른 臟과 달리 肝郁을 爲主로 說明하고 있다.

陳士鐸은 雜病中에서 脇痛의 病理를 설명할 때 肝郁을 爲主로 說明하고 있다.

“人有兩脇作痛^{하야} 終年累月而不愈者^{하며} 或時而少愈^라 時而作痛^{하며} 病來之時에 身發寒熱^{하네} 不思飲食을 人以此肝經之病也^라 하니라 然肝經之所以成病은 尙未知其故니 大約得之氣惱者爲多^라 因一時拂抑^{하야} 欲怒而不敢^{하야} 一種不平之氣가 未得暢泄^{하야}

肝氣郁而膽氣亦郁^{하야} 不能取決于心中^{하야} 而心中作熱^{하야} 外反變寒^{하야} 寒熱交蒸^{하야} 則肝經之血^이 停住于兩脇而作痛矣^라 倘境遇順適^{하면} 則肝氣少舒^{하야} 其痛不甚^{이다}”³⁾

그는 治法에 있어 解怒氣하고 平肝하는 法을 써서 遺怒丹이라는 處方을 제시하였는데 白芍藥의 平肝을 爲主로 하고 있다.

3) 腎水の 病理

陳士鐸은 『外經微言·腎水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曰 請問腎水之義^{하노}이다 岐伯曰 腎屬水^은 先天眞水也^라 水生于金^{하니} 故肺金爲腎母^라 然而肺不能竟生腎水也^은 必得脾土之氣薰蒸^{이라야} 肺始有生化之源^{이라} 少師曰 土克水者也^{어늘} 何以生水^은 岐伯曰 土食生金^{하고} 全忘克水矣^라 少師曰 金生水而水養于金^은 何也^은 岐伯曰 腎水^는 非肺金不生^{하고} 肺金^은 非腎水不潤^{이라} 蓋肺居上焦^{하야} 諸臟腑之火^가 咸來相逼^{하니} 苟非腎水灌注^면 則肺金立化矣^니 所以二經子母^는 最爲關切^{하야} 無時不交相生^{하야} 亦無時不交相養也^라 是以^로 補腎者^는 必須益肺^{하고} 補肺者^는 必須潤腎^{이라} 始既濟而成功也^라 少師曰 腎得肺之生^{하고} 卽得肺之損^{하니} 有何以養各臟腑乎^야 岐伯曰 腎交肺而肺益生腎^은 則腎有生化之源^{이니} 山下出泉涓涓^{하야} 正不竭也^라 腎既優渥^{이면} 乃分其水以生肝^{하고} 肝木之中^엔 本自藏火^니 有水則木且生心^{하고} 無水則火且焚木^{하니} 木得水之濟^면 則木能自養矣^라 木養于水^{하야} 木有和平之氣^{하야} 自不克土^{하야} 而脾胃得遂其昇發之性^{이면} 則心火何至躁動乎^야 自然水不畏火之炎^{하고} 乃上潤而濟心矣^라 少師曰 水潤心^{이면} 固是水火之既濟^니 但恐火炎而水不來濟也^{하노}이다 岐伯曰 水不潤心^은 故木無水養也^라 木無水養^{이면} 肝必干燥^{하고} 火發木焚^{하면} 燼盡脾胃之液^{이니} 肺金이 救土之不能^이

이^는 何暇生腎中之水^{리오} 水潤而肝益加燥^{하고} 腎無瀝以養肝 安得餘波以灌心乎^야 肝木愈橫^{하니} 心火愈炎^{하고} 腎水畏焚^{하야} 因不上濟于心^{이니} 此腎衰之故^니 非所謂腎旺之時也^라 少師曰 腎衰不能濟心^{이면} 獨心受其損乎^야 岐伯曰 心無水養則心君不安^{하야} 乃遷其怒于肺金^{하야} 遂移其火以逼肺矣^라 肺金^은 最畏火炎^{하니} 隨移其熱于腎^{하면} 而腎因水竭^{하야} 水中之火正無所依^{하야} 得心火之相會^{하야} 翕然昇木^{하야} 變出龍雷^니 由下焦而騰中焦^{하야} 由中焦而騰上焦^{하야} 有不可止遏之機矣^라 是五臟七腑均受其害^니 寧獨心受損乎^야 少師曰 何火禍之酷乎^야 岐伯曰 非火多爲害^은 乃水少爲炎也^라 五臟有臟火^{하고} 七腑有腑火^{하니} 火到之所^에 同氣相親^{이라} 故其勢易旺^{하니} 所異者^는 水以濟之也^라 而水止腎臟之獨有^은 且水中^에 又有火也^니 水之不足^{이면} 安敵火之有餘^{리오} 此腎臟所以有補無瀉也^라 少師曰 各臟腑皆取資于水^면 宜愛水而畏火矣^{어늘} 何以多助火以增焰乎^야 岐伯曰 水少火多^{하야} 一見火發^{이면} 惟恐火之耗水^{하야} 竟來顧水^니 誰知反害水乎^야 此禍生于愛^니 非惡水而愛火也^라 少師曰 火多水少^면 瀉南方之火^가 非卽補北方之水乎^야 岐伯曰 水火又相根也^니 無水則火烈^{하고} 無火則水寒^{이라} 火烈則陰虧也^은 水寒則陽消也^니 陰陽兩平^{이라야} 必水火既濟矣^라 少師曰 水火既濟^면 獨不畏土之侵犯乎^야 岐伯曰 土能克水^니 而土亦能生水也^라 水得土以相生^{이면} 則土中出水^{하리}야 始足以養肝木而潤各臟腑也^라 第不宜過于生^之니 則水勢汪洋^{하면} 亦能沖決堤岸^{이니} 水無土制^면 變成洪水之逆流^라 故水不畏土之克也^라 少師曰 善^{하노}이다⁴⁾

(소사가 물기를 腎水の 意義를 묻잡노이다.

기백이 이르기를 腎이 水에 속하는 것은 先天의 眞水이다. 水는 金에서 생하니 肺金은 腎의 어미가 된다. 그러나 肺는 곧장 腎水を 생하지 못하고 만드시 脾土之氣의 훈증을 얻어야만 肺는 비로써 生化之源을 두게 된다.

소사가 물기를 土는 水를 克하거늘 어찌서 水

3) 柳長華. 상계서. p. 737.

4) 柳長華. 상계서. pp. 23~24

를 생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土는 金을 생하기를 탐하고 水를 克하는 것을 잘 잊어버린다.

소사가 이르기를 金生水하는데 水가 金을 자양하는 것은 어찌서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腎水는 肺金이 아니면 생하지 못하고 肺金은 腎水가 아니면 축축해지지 않나니 肺가 上焦에 居하여 모든 장부의 火가 모두 와서 熾박을 하니 진실로 腎水가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肺金이 곧 타버릴 것이니 그러므로 肺經과 腎經의 母子는 가장 관계가 밀접해서 때로 서로 相生해 주지 않음이 없으며 또한 때로 서로 길러주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腎을 보하는 자는 반드시 益肺해 주어야 하고 肺를 보하는 자는 반드시 潤腎해 주어야 하니 비로소 既濟가 되어 공을 이루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腎은 肺가 생해 주기도 하고 肺가 손상을 주기도 하니 어떻게 각 장부를 기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腎은 肺와 交流함에 肺가 더욱 腎을 생하는 것은 腎에 生化하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니 산 아래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와 정히 마르지 않는 것이다. 腎이 이미 넉넉히 젖으면 그 水를 나누어 肝을 생하고 肝木의 사이엔 본래 火가 간직되어 있으나 水가 있으면 木이 또한 心을 생하나 水가 없으면 火가 또한 木을 태우니 木이 水를 얻으면 木이 自養하게 된다. 木이 水에서 자양되어 木에 和平한 기운이 있어 土를 克하지 아니 하여 脾胃가 昇發之性을 완수하면 心火가 어찌 躁動함에 이르겠는가. 自然히 水는 火가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 운택하게 하여 心을 구제 할 것이다.

소사가 묻기를 水가 心을 축축하게 하면 진실로 水火既濟가 되지만 단지 火가 타올라 水가 와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潤心하지 못하는 것은 木에 水가 자양함이 없기 때문이다. 木을 水로 자양함이 없으면 肝이 반드시 乾燥해지고 火가 發하여 木이 타오르면 脾胃의 진액을 다 태워버

리니 肺金이 土를 구원하는 것도 능하지 못하게 늘 어느 겨를에 腎中之水를 생하겠는가. 水가 달라 肝이 더욱 더 건조해지고 腎이 물을 공급하여 肝을 기르지 못하면 어찌 남은 물이 있어 心을 자양하겠는가. 肝木이 더욱 횡포해지면 心火가 더욱 불타고 腎水가 불탐을 두려워하여 心을 위로 가서 구제하지 못하니 이것은 腎水가 쇠약해진 연고니 이른바 腎이 왕성한 때가 아닌 것이다.

소사가 묻기를 腎이 쇠약해 心을 구제하지 못하면 오직 心만이 손상을 받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心이 水의 자양함이 없으면 心君이 불안해서 그 화남을 肺金에게 옮겨서 드디어 火를 옮겨서 肺를 熾박한다. 肺金은 가장 心이 타오름을 두려워하니 이어서 그 열을 腎에 옮기면 腎이 水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水中之火가 의지 할 곳이 없어서 心火와 서로 만나 轟연히 木을 올려서 龍雷之火로 변해서 나오니 하초에서 중초로 올라가며 중초에서 상초로 올라가 그치게 할 수 없는 기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장 칠부 모두 해를 받으니 어찌 홀로 心만이 손상을 받겠는가.

소사가 묻기를 어찌서 火의 재앙이 혹독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많아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적어서 불타오르는 것이다. 오장에는 臟火가 있고 칠부에는 腑火가 있으니 火가 이르는 곳에 같은 기운끼리 서로 친해진다. 그러므로 그 형세가 쉽게 왕성해지니 다른 것은 水로써 구제하는 것이다. 水는 단지 신장에서만 홀로 존재하고 또 水中에는 火가 있으니 水가 부족하면 어찌 火의 有餘함을 대적하리오. 이것이 신장은 補만 있고 瀉가 없는 이유이다.

소사가 묻기를 각 장부가 모두 水에서 溼氣를 取하면 마땅히 水를 아끼고 火를 두려워해야 하거늘 어찌 대부분 火를 도와서 타게 하는 것을 돕는가.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적고 火가 많아 만일 火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오직 火가 水를 모순시킬까 두려워 마침내 와서 水를 돌아보니 누가

도리어 물을 해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것은 재앙이 아낌에서 생기는 것이니 물을 싫어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소사가 물기를 火가 많고 水가 적으면 남방의 火를 瀉하는 것이 곧 北方의 水를 補하는 것이 아닌가.

기백이 이르기를 水火는 또 서로 뿌리를 이루니 水가 없으면 火가 치열하고 火가 없으면 水가 차가워진다. 火가 치열하면 陰이 虧損되고 水가 차가워지면 陽이 소모되니 陰陽이 모두 고르게 되어야만 반드시 水火既濟가 된다.

소사가 이르기를 水火既濟가 되면, 홀로 土의 침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백이 이르기를 土는 水를 克하기도 하지만 土는 또한 水를 生하기도 한다. 水가 土를 얻어 相生하면 土中에서 水가 나와 비로소 흥분히 肝木을 滋양하고 각 장부를 윤택하게 한다. 단지 지나치게 生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물의 형세가 넘치면 또한 제방과 언덕을 무너뜨리니 水는 土의 제압함이 없으면 洪水가 逆流함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水는 土가 克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이상에서 陳士鏗은 여기에서 五臟이 水를 얻으면 潤澤해지고 水가 없으면 損傷을 받는 이치를 자세하게 說明하고 있다.

4) 心火의 病理

陳士鏗은『外經微言·心火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曰 心火는 君火也⁵⁾ 何故宜靜不宜動⁶⁾ 岐伯曰 君主無爲⁷⁾ 心爲君火니 安可有爲乎⁸⁾ 君主有爲는 非生民之福也⁹⁾ 所以心靜則火息¹⁰⁾ 心動則火炎¹¹⁾ 息則脾胃之土受其益¹²⁾ 炎則脾胃之土受其災¹³⁾ 少師曰 何謂也¹⁴⁾ 岐伯曰 脾胃之土는 喜溫火之養¹⁵⁾ 惡烈火之逼也¹⁶⁾ 溫火養則土有生氣 而成活土¹⁷⁾ 烈火逼則土有死氣 而成焦土矣¹⁸⁾ 焦火(土)何以生金¹⁹⁾

肺金乾燥²⁰⁾ 必求濟于腎水²¹⁾ 而水不足以濟之也²²⁾ 少師曰 腎水本濟心火者也²³⁾ 何以救之無裨乎²⁴⁾ 岐伯曰 人身之腎水는 原非有餘²⁵⁾ 況見心火之太旺²⁶⁾ 雖濟火甚切²⁷⁾ 獨不畏火氣之熾乎²⁸⁾ 故避火之炎²⁹⁾ 不敢上昇于心中也³⁰⁾ 心無水濟則心火更烈³¹⁾ 其克肺益甚³²⁾ 肺畏火刑³³⁾ 必求援于腎子³⁴⁾ 而腎子欲救援而無水³⁵⁾ 又不忍肺母之凌爍³⁶⁾ 不得不出其腎中所有³⁷⁾ 傾國以相助³⁸⁾ 于是 水火兩騰³⁹⁾ 昇于上焦⁴⁰⁾ 而與心相戰⁴¹⁾ 心因無水以克肺⁴²⁾ 今見水不濟心⁴³⁾ 火來助肺⁴⁴⁾ 欲取其水⁴⁵⁾ 而轉與火相合⁴⁶⁾ 則火勢更旺⁴⁷⁾ 于是 肺不受腎水之益⁴⁸⁾ 反得腎火之虐矣⁴⁹⁾ 斯時에 肝經之木이 見肺金太弱⁵⁰⁾ 亦出火以焚心⁵¹⁾ 明助腎母以稱⁵²⁾ 于實報肺仇而加刃也⁵³⁾ 少師曰 何以解氛乎⁵⁴⁾ 岐伯曰 心火動極矣⁵⁵⁾ 安其心而火可息也⁵⁶⁾ 少師曰 可用寒涼直折其火乎⁵⁷⁾ 岐伯曰 寒涼은 可暫用⁵⁸⁾ 不可久用也⁵⁹⁾ 暫用則火化爲水⁶⁰⁾ 久用則水變爲火也⁶¹⁾ 少師曰 斯又何故歟⁶²⁾ 岐伯曰 心火는 必得腎水以濟之也⁶³⁾ 滋腎安心⁶⁴⁾ 則心火永靜⁶⁵⁾ 舍腎安心⁶⁶⁾ 則心火仍動矣⁶⁷⁾ 少師曰 凡水火는 未有不相克也⁶⁸⁾ 而心腎水火는 何相交而相濟乎⁶⁹⁾ 岐伯曰 水不同耳⁷⁰⁾ 腎中邪水는 最克心火⁷¹⁾ 腎中眞水는 最養心火⁷²⁾ 心中之液은 卽腎內眞水也⁷³⁾ 腎之眞水旺而心火安⁷⁴⁾ 腎之眞水衰而心火沸⁷⁵⁾ 是以 心腎交而水火既濟⁷⁶⁾ 心腎開而水火未濟也⁷⁷⁾ 少師曰 心在上⁷⁸⁾ 腎在下⁷⁹⁾ 地位懸殊⁸⁰⁾ 何以彼此樂交無間乎⁸¹⁾ 岐伯曰 心腎之交는 雖胞胎導之⁸²⁾ 實肝木介之也⁸³⁾ 肝木氣通⁸⁴⁾ 腎無阻隔⁸⁵⁾ 肝木氣郁⁸⁶⁾ 心腎卽閉塞也⁸⁷⁾ 少師曰 然則肝木은 以又何以養之⁸⁸⁾ 岐伯曰 腎水는 爲肝木之母⁸⁹⁾ 補腎은 卽所以通肝⁹⁰⁾ 木非水⁹¹⁾ 不旺⁹²⁾ 火非木⁹³⁾ 不生⁹⁴⁾ 欲心液之不枯⁹⁵⁾ 必肝血之常足⁹⁶⁾ 欲肝血之不⁹⁷⁾ 必腎水之常盈⁹⁸⁾ 補肝木은 要不外補腎水也⁹⁹⁾ 少師曰 善¹⁰⁰⁾

(소사가 물기를 心火는 君火인데 어찌서 고요하

5) 柳長華, 상계서, pp. 24~25.

게 해야만 하고 움직이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입금은 無爲해야 하고 心은 君火가 되니 어찌 有爲의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君主가 有爲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백성의 복이 아니다. 따라서 心이 고요하면 불이 꺼지고 心이 움직이면 불이 타오르니 꺼지면 脾胃의 土가 유익함을 받고 불타오르면 脾胃의 土가 재앙을 받는다.

소사가 묻기를 어떻게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脾胃之土는 따뜻한 불로 길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매서운 불로 찝박하는 것을 싫어하니 溫火로써 기르면 土에 生氣가 있어 活土를 이루고 매서운 불로 찝박하면 土에 死氣가 있어 焦土를 이루게 되니 焦土가 어찌 金을 만들어 내겠는가. 肺金이 마르면 반드시 腎水에 구원을 요청하나 水가 不足하면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腎水는 본래 心火를 구제하는 것이거늘 어찌서 구제해도 도움이 없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사람의 腎水는 본래 有餘하지 않은데 하물며 心火가 아주 왕성한 것을 보고 비록 火를 구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홀로 火氣가 녹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불이 타오르는 것을 피해서 감히 心中으로 上昇을 하지 않는다. 心臟을 水로 구제하지 않으면 心火가 더욱 치열해져서 肺를 더욱 심하게 克하고 肺는 火의 침범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腎의 자식에게 구원을 요청하나 腎의 자식은 구원하고 싶으나 水가 없고 또 肺의 어머니가 능욕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부득불 腎中の 모든 것을 내서 전력으로 도와주게 된다. 이에 水火가 서로 올라가 上焦에서 心臟과 싸우게 된다. 心은 水가 없었기 때문에 肺를 克했는데 이제 水가 心을 구제하지 못하여 火가 와서 肺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水를 取하고자 하나 도리어 火와 서로 합하게 되면 火의 형세가 더욱 왕성하게 되니 이에 肺는 腎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腎火의 학대만을 받게 된다. 이때에 肝經의 木이 肺金이 아주 약한 것을 보

고 또한 火를 出하여 心을 불태우니 분명하게 腎母를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肺에 대해 원수를 갚고 칼질을 더하는 것이다.

소사가 묻기를 어떻게 이러한 기운을 풀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心火動하는 것이 극한 상태에 이르면 心이 편안해지고 火가 꺼지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한량한 약을 써서 직접 火를 꺾어 버려도 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한량한 약은 잠시 쓸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는 없으니 잠시 쓰면 火가 水로 변화되고 오래 쓰면 水가 火로 변하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心火는 반드시 腎水를 얻어야만 구제할 수 있으니 腎水를 불러서 安心을 하면 心火가 영원히 고요해 지지만 腎을 버리고 安心을 하면 心火 여전히 動하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무릇 水火는 相克하지 아니함이 없거늘 心腎水火는 어찌서 相交하면서도 相濟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腎中の 邪火는 가장 잘 心火를 克하고 腎中の 眞水가 旺盛해지면 心火가 편안해지고 腎의 眞水가 쇠약해지면 心火가 끓게 된다. 그러므로 心腎이 相交하면 水火既濟가 이루어지고 心腎이 열리게 되면 水火未濟가 된다.

소사가 묻기를 心은 위에 있고 腎은 아래에 있어 위치가 현격히 다르거늘 어찌서 피차 즐겁게 相交하여 사이가 없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心腎의 相交는 비록 胞胎가 인도하지만 사실상 肝木이 중개를 한다. 肝木의 氣가 통하면 腎은 막힘이 없으나 肝木의 기가 울체되면 心腎은 폐쇄하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그렇다면 肝木은 또 어떻게 기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腎水는 肝木의 어머니가 되니 補腎하면 바로 通肝이 된다. 木은 水가 아니면 왕성해지지 않고 火는 木이 아니면 생하지 않으니 心液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肝血

을 풍족하게 해야 하고 肝血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腎水를 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陳士鐸은 心火의 病理를 論하면서 腎水의 必要性을 증시하고 있으며 肝, 脾, 肺의 상관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五臟의 상관관계를 모두 동원하여 병리기전을 설명하는 것은 陳士鐸의 五臟辨證의 중요한 特徵이 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陳氏는 “心火는 君火이다. 君이되는 心은 有形之火가 되니 水로써 꺾을 수가 있지만 腎中之火는 無形之火니 無形之火로 水를 기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 火의 有形과 無形을 안다면 虛火와 實火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5) 脾土의 病理

陳士鐸은 『外經微言·脾土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問曰 脾爲濕土也 土生于火니 是火爲脾土之父母乎 岐伯曰 脾土之父母 不止一火也니 心經之君火와 包絡三焦命門之相火가 皆生之라 然而君火之生脾土甚疏하고 相火之生脾土甚切이요 而相火之中에 命門之火尤爲最親이라 少師曰 其故何歟 岐伯曰 命門盛衰 卽脾土盛衰也 命門生絕 卽脾土生絕也라 蓋命門이 爲脾土之父母 實關死生이니 非若他火之可旺可微하며 可有可無也라 少師曰 命門火過旺은 多非脾土之宜이요 又何故乎 岐伯曰 火少則土濕하여 無發生之機하고 火多則土乾하여 有燥裂之害라 蓋脾爲濕土 土中有水라 命門者 水中之火也니 火藏水中이면 則火爲既濟之火니 自無亢焚之禍하며 與脾土相宜라 故火盛亦盛하고 火衰亦衰하며 火生則生하고 火絕則絕也라 若火過于旺하면 是火勝于水矣니 水不足以濟火면 乃未濟之火也라 火似旺而實衰하고 假旺而非眞旺也니 與脾土 不相宜耳니 非惟不能生脾

也 轉能耗土之生氣라 脾土無生氣면 則赤地于枯니 欲化精微以潤各臟腑니 難矣라 且火氣上炎하여 與三焦包絡之火로 直冲而上하면 與心火相合하여 火愈旺而土愈耗니 不成爲焦火(土)니 得乎 少師曰 焦土能生肺金乎 岐伯曰 肺金은 非土不生이요 今土成焦土라야 中鮮潤澤之氣면 何以生金哉 且不特不生金也라 更且嫁禍于肺矣니 蓋肺乏土氣之生하고 又多火氣之逼이면 金弱木強은 必至之勢也라 木強凌土 而土敗면 更難生金이요 肺金絶而腎水亦絶也라 水絶則木無以養하여 木枯自焚하고 益添火焰하여 土愈加燥矣라 少師曰 治何經以救之 岐伯曰 火之有餘 水之不足也라 補水則火自息이니 然而徒補水則水不易生이니 補肺金之氣면 則水有化源하여 不患乎無本也라 腎得水以制火면 則水火相濟하여 火無偏旺之害니 此治法之必先補水也라 少師曰 善하노이다6)

(소사가 묻기를 脾는 濕土이고 土는 火에서 생겨나니 火는 脾土의 父母가 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脾土의 부모는 단지 하나의 火일 뿐만이 아니니 心經의 君火와 包絡, 三焦, 命門의 相火가 모두 생한다. 그러므로 君火가 脾土를 생하는 것은 아주 성기고 相火가 脾土를 생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며 相火가운데서도 命門의 火가 가장 친밀하다.

소사가 묻기를 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命門의 盛衰는 곧 脾土의 盛衰이고 命門의 生함과 끊어짐은 곧 脾土의 生함과 끊어짐이 된다. 대개 命門이 脾土의 父母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니 다른 火가 왕성하거나 미약하며 있거나 없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소사가 묻기를 命門火가 지나치게 왕성한 것은 대체로 脾土에게 마땅하지 않거늘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적으면 土가 濕하여 發生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가 많으면 土가 말라서 건조해서 갈라지는 해가 있게 된다. 대개 脾는

6) 柳長華, 상계서, p. 26.

濕土가 되니 土中에 水가 있다. 命門은 水中之火니 火가 水中에 갈무리되어 있으면 火는 既濟之火가 되니 항성해서 불타는 재앙이 없어서 脾土와 서로 마땅하게 된다. 그러므로 命門火가 왕성해지면 또한 脾土가 왕성해지고 命門火가 쇠약해지면 또한 脾土가 쇠약해지며 命門火가 생하면 脾土가 생해지고 命門火가 絶하면 脾土가 絶해진다. 만약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火가 水보다 勝한 것이니 水가 충분히 火를 구제하지 못하면 未濟之火가 된다. 火가 왕성한 것 같지만 사실상 쇠약하고 일시적으로 왕성하나 진짜 왕성한 것은 아니니 脾土와 서로 마땅하지 않으니 脾를 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土의 生氣를 모순시킨다. 脾土에 生氣가 없으면 붉은 땅이 되어 파르게 되니 食物을 精微之氣로 변화시켜 각 장부를 윤택하게 하고자 하나 어렵게 된다. 또한 命門 火氣가 위로 타올라 三焦 包絡의 火와 더불어 곧장 충돌해서 올라가면 心火와 서로 결합해서 火가 성해지면 질수록 土는 더욱 모순되니 焦土를 이루지 않고자 하나 가능하겠는가.

소사가 묻기를 焦土는 肺金을 생할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肺金은 土가 아니면 생할 수가 없거늘 이제 土가 焦土를 이루어 가운데 潤澤之氣가 부족하게 되면 어찌 金을 생할 수 있겠는가. 또한 金을 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재앙을 肺에까지 전가시키니 肺는 土氣가 생해준이 적고 또 火氣의 펄박을 많이 받으면 金이 쇠약해지고 木이 강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르게 되는 형세이다. 木이 강해서 土를 능멸해서 土가 쇠약하게 되면 더욱 金을 생하기 어렵게 되고 肺金이 끊어지면 腎水도 끊어지게 된다. 水가 끊어지면 木이 길러지지 않아 木이 말라 저절로 타고 더욱 더 불타올라서 土가 더욱 더 건조해진다.

소사가 묻기를 어떤 經을 다스려서 구원할 것인가.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有餘한 것은 水가 不足한 것이다. 水를 補하면 火가 저절로 꺼지나 그렇다고 단지 水만 補하면 水가 쉽게 생하지 않

으니 肺金之氣를 補하면 水에 化源이 있게 되어서 근본이 없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腎이 水를 얻어서 火를 제압하면 水火相濟하여 火는 偏旺하는 해가 없게 되니 이것이 治法에서 반드시 먼저 水를 補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사가 이르기를 홀륭합니다.)

이상에서 陳士鐸은 火生土하지만 君火, 包絡火, 三焦火, 命門火 중에서 命門火가 주로 生脾土함을 설명하였고 또한 命門火가 왕성하면 生脾土하지 못하고 오히려 克土하여 生中之克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生金, 生水하지 못하고 木만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土를 더욱 건조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직접 腎水를 補하는 것보다는 肺金을 補해서 金生水하게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補水하는 方法이라고 하였다.

2. 臟腑五行理論으로 雜病의 病理를 설명함

陳士鐸은 外感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들을 5장 6부의 相生相克과 水火를 바탕으로 病理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오장의 상생·상극을 중심으로 雜病의 病理를 설명한 것 중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그가 雜病의 病理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臟腑五行理論을 運用하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消渴

陳士鐸은 『辨證錄·消渴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消渴之病은 有氣喘痰嗽^{하비} 面紅虛浮^{하비} 口舌腐爛^{하비} 咽喉腫痛^{하비} 得水則解^{하비} 每日飲水約得一斗^{하비} 하니 人^{하비}以爲上消之病也나 誰知是肺消之症乎^{하비} 夫肺屬金^{하비}하고 金宜清肅^{하비}이^{하비}어^{하비}는 何火熾如此^{하비} 蓋心火刑之也^{하비} 라 肺爲心火所刑^{하비}이면 則肺金乾燥^{하비}하고 又因腎水之虛^{하비}니 欲下顧腎^{하비}이나 肺氣既燥^{하비}면 肺中津液이 自顧不遑^{하비}이^{하비}는

安得餘津以下潤夫腎乎아 肺既無內水以潤腎이면 乃索外水以濟之나 然救其本宮之火災에 而終不能益腎中之眞水라 腎又不受外水면 而與膀胱爲表里니 卽將外水傳于膀胱이니 故飲水而卽溲也라 治法은 似宜瀉心中之火하여 以救肺金之熱矣라 然而肺因火熱發渴하여 日飲外水면 則水停心下者有之라 水日侵心이면 則心火留于肺而不歸하고 心中已成虛寒之窟이니 是寒涼之藥은 反爲心之所惡라 且寒涼之藥은 不能上存하니 勢必下趨于脾胃라 夫肺火之盛而不解者는 正苦于脾胃之虛니 土不能生金之故라 苟再用寒涼하면 必至損傷脾胃之氣니 肺金何以養哉라오 必須仍治肺金라고 少加補土之味면 則土旺而肺氣自生하여 清肅之令行而口渴自止라 方用清上止消丹이라

麥冬二兩 天冬一兩 人參三兩 生地五錢 茯苓五錢 金銀花一兩이니 水煎服이라 十劑에 渴盡減하고 二十劑에 全愈라

此方은 重治肺 而輕治胃與脾니 治肺而不損金하고 清火而不傷土라 土生金而金生水니 又何疑乎아 惟方中加入金銀花者는 火刑金而多飲涼水면 則寒熱相擊이니 熱雖暫解于片刻이니 而毒必留積于平時니 (不)用清金之藥하여 以解其熱이면 不能解其毒也라 與其日後毒發而用散毒之品은 何若乘解熱之時하여 卽兼解其毒하여 先杜其患哉라오 況金銀花不特解毒이라 且善滋陰이니 一味而兩用之也라?)

陳氏는 消渴을 心火가 肺金을 克하여 肺를 乾燥하게 하고 腎水까지 虛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나. 그리고 治法은 瀉心中之火하여 肺金之熱을 구제하였고 또 補土之劑를 加하여 土生金하는 方法을 제시하여 五臟相生·相克의 이론을 바탕으로 病理와 治法을 설명하고 있다.

2) 夢遺

陳士鐸은 『辨證錄·夢遺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人有用心過度하여 心動不寧하여 以致夢遺者는 其症이 口渴舌乾하네 面紅靨赤하네 眼閉卽遺하고 一夜有遺數次者는 疲倦困頓하여, 人以爲腎虛之過也나 誰知是心虛之故乎아 夫心喜寧靜하고 不喜過勞하니 過勞則心動하고 心動則火起而上炎하고 火上炎則水火相隔하여 心之氣不能下交于腎하다 腎之關門大開矣라 蓋腎之氣는 必得心氣相通이다야 而始能藏精而不泄이 어늘 今心不能攝腎하면 則精焉得而不走乎아 雖然心未常不惡腎之不藏也나 無如心慾攝腎而力不能也라 然則治法은 何必治腎이리오 補心中之虛면 而夢遺自止矣라 方用靜心湯이라

人參三錢 白朮五錢 茯神五錢 沙棗仁 山藥各一兩 芡實一兩 甘草五分 當歸三錢 北五味十粒 麥冬五錢 水煎服 二劑遺止하고 十劑에 永不再遺也라.

此方은 大補心氣之虛하고 全不去瀉心之火라 蓋火之動은 由于心之過勞니 是火는 乃虛火로 非心之實火也라 實火는 可瀉이니와 虛火는 宜補라 世人은 以實火瀉之하니 此夢遺之所以不能止也라?)

여기에서 陳氏는 夢遺의 病理를 腎虛가 아닌 心虛로 大補心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夢遺를 實火로 보고 瀉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石室秘錄·本治法』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論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師曰 本治者는 治心腎之法也라 人非心이면 不能寧靜致遠하고 非腎이면 不能作強生育이라 故補心卽當補腎하고 補腎卽當補心也라 是二經은 一身之主宰오 臟腑之根本也라 故人病心驚不安하네 或夜臥不睡者는 人以爲心之病也나 誰知非心病也오 腎病也라 如人見色而思戰이니 入門而倒戈者와 或夢遺精滑者는 人以爲腎之病也나 誰知非腎病也오 心病也라 然則欲安心者는 當治腎하고 欲治腎者는 當治心이라

治心方 用人參三兩 茯苓三兩 茯神三兩 遠志二

7) 柳長華, 상계서, p. 840.

8) 柳長華, 상계서, pp. 883~884.

兩 生棗仁一兩 熟地三兩 山茱萸三兩 當歸三兩 菖蒲三錢 黃連五錢 肉桂五錢 白芥子一兩 麥冬三兩 砂仁五錢이니 各爲末하야 蜜爲丸하고 每日送下五錢오디 或酒或湯俱可라 此方은 乃治心之驚與不寐耳니 宜用 麥 苓 當歸 麥冬이변 足矣오 卽或爲火起不寐면 加黃連亦足矣어늘 何以反用熟地 山茱萸補腎之藥하며 又加肉桂以助火오 不知人之驚恐者는 乃腎氣不入于心也오 不寐者는 乃心氣不歸于腎也라 今用熟地 山茱萸以補腎하면 則腎氣有根이니 自然上通于心矣오 肉桂以補命門之火면 則腎氣既溫이오 相火有權이면 則心氣下行하야 君火相得이니 自然上下同心하야 君臣合德矣리라

治腎方者가 精滑夢遺與見色倒戈는 則關門不守하야 腎無開合之權矣라 誰知皆心君之虛하야 而相火奪權하야 以致如此오 方用熟地半斤 山藥四兩 山茱萸四兩 茯苓三兩 肉桂一兩 附子一個 人蔘三兩 白朮四兩 北五味一兩 麥冬三兩 遠志一兩 炒棗仁一兩 鹿茸一副 巴戟天三兩 肉蓯蓉三兩 柏子仁一兩 砂仁五錢 紫河車一副 杜冲一兩 破古紙一兩하야 各爲末하고 蜜爲丸이라 此方에 用熟地 山藥 杜冲 山藥之類는 補腎也오 巴戟天 蓯蓉 附子 鹿茸은 補腎中之火也니 可以已矣어늘 而必加人蔘 苓 柏子仁 麥冬 遠志 棗仁之類者는 何也오 蓋腎中之火虛는 由于心中之火先虛也라 故欲補腎火者는 先補心火니 使心火不補면 腎火終不能益而轉增其上焦之枯竭이라 故必須兼補其心이니 心氣下舒于腎中하고 腎氣上交于心이면 則水火相濟하고 君臣和悅하며 人民奠安하고 肺氣清寧하며 脾胃得養하고 通調三焦니 不妨整戈矛再利니 卽野御라도 亦可收攻也리라9)

이상의 내용은 本治法은 心腎을 다스리는 법이고 心驚不安과 夜臥不睡하는 사람을 사람들이心病이라고 생각하지만 腎病이고 女色을 보고 性慾을 느끼고 性交時 勃起不全하고 夢遺精滑한 사

람을 사람들이 腎病이라고 생각하지만 心病이라고 주장하면서 欲安心者當治腎하고 欲治腎者當治心해야 한다는 治法과 治方및 方解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五臟을 中心으로 병리와 치법을 설명하는 陳士鐸의 五臟辨證論治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3) 咳嗽

陳士鐸은 『辨證錄·咳嗽門』에서 모두 8종류의 變證과 處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久嗽不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人有久嗽不愈에 用補腎滋陰之藥이나 不效하고 反覺飲食少思하야 強食之而不化하야 吐痰不已者는 人 以爲肺經에 尙有邪留于胃中이나 而不知乃脾胃虛寒 不能生肺하야 使邪留連于中脘而作嗽也라. 夫肺金之母는 脾胃二經之土也니 土旺則金旺하고 土衰則金衰라 不補母以益金하고 反瀉子以損土면 邪卽外散이나 肺且受傷이오 況尙留餘邪未散乎어! 毋怪其久嗽而不愈也이다. 然則治之之法은 不可僅散肺之邪오 而當急補肺之氣며 不可僅補肺之氣오 而尤當急補脾胃之土矣라 然不可徒補脾胃也니 蓋補胃에 必須補心包之火오 而補脾에 必須補命門之火라. 心包生胃土하고 命門生脾土니 實有不同耳라. 然而胃病卽脾必病하고 而脾病則胃亦病也라. 吾補胃而卽兼補脾하고 補脾而卽兼補胃는 未嘗非肺金之所喜라 肺喜正氣之生하고 自惡邪氣之克이니 不必治嗽而嗽病自己已矣라 方用補母止嗽湯이라

白朮五錢 茯苓五錢 人蔘一錢 陳皮三分 甘草一錢 蘇子一錢 半夏一錢 桔梗二錢 麥冬五錢 紫苑一錢 肉桂五分이니 水煎服이라

一劑而嗽輕하고 二劑而嗽更輕하고 四劑而嗽全止矣라 此方은 乃補脾胃之聖藥이오 加入肉桂하야 以補心包, 命門之二火니 一味而兩得之也라 又恐徒治脾胃之母하고 置肺邪于不問하야 增入補肺散邪之味면 則子母兩得이니 而久嗽安得不速愈哉리오10)

9) 柳長華, 상계서, pp. 307~308.

이곳에서 陳氏는 久嗽不愈를 土生金法을 써서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토도 脾胃의 두께가 있어 다시 脾胃를 왕성하게 하기위해 心包의 火를 補해 生胃土하고 命門의 火를 補해 生脾土하여 土生火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陳氏는 雜病을 五臟에 귀속시켜 五行의 相生·相克으로 병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治法에 있어서도 五行의 相生·相克이론을 적극적으로 活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翻胃

陳士鐸은 『辨證錄·翻胃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人有飲食入胃而卽吐者 此肝木이 克胃土也니 用逍遙散加吳茱萸炒黃連治之 隨手而愈인마나 而無如(不)人이爲胃病也하야 雜用香砂消導之劑하야 反傷胃氣하야 愈增其吐라 又改用下藥이나 不應하면 復改用寒涼之味하야 以降其火니 不獨胃傷而脾亦傷矣라 又改用辛熱之藥하야 以救其寒이나 又不應하면 始悟用和解之法하야 解鬱散邪나 然已成噎膈之症矣라 夫胃爲腎之關門이니 腎中有水하야 足以給胃中之用이니 則咽喉之間에 無非津液이 可以推送水穀이나 腎水不足이니 力不能潤灌于胃中이니 又何能分濟于咽喉乎라 咽喉成爲陸地니 水乾河涸하야 舟膠不前이니 勢所必至라 且腎水不足하야 不能下注于大腸이니 則大腸無津液以相養하고 久必瘦小而至艱澁이오 腸既細小艱澁이니 飲食入胃에 何能推送이리오 下旣不行이니 必積而上泛이니 不特上不能容而吐라 抑亦下不能受而吐也라 治法은 必須大補其腎中之水라 方用濟艱催挽湯¹⁰⁾라

熟地二兩 山茱一兩 當歸二兩 牛膝三錢 玄蔘一兩 車前子一錢이니 水煎服이라 一日一劑니 十劑에 必大順也라

此方은 純補精血이니 水足而胃中有津하야 大腸有液하야 自然上下相通而無阻滯之患이라 譬如河漕水

淺하야 舟楫不通하야 糧糈不能輸運하야 軍民이 莫不彷徨而喧譁擾攘이라 忽見大雨滂沱하야 河渠, 溝壑에 無非汪洋大水니 則大舸巨舶이 得以裝載糶糧하야 自然人情踊躍하고 關門大開하야 聽其轉運而無所留難也¹¹⁾

여기에서 陳氏는 飲食入胃卽吐하는 翻胃症의 病理와 治法·治方을 소개하면서 五臟 상호간의 관련성을 爲主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翻胃症을 胃病이라고 생각하여 消導之劑를 쓰거나, 下藥을 쓰거나, 或 寒涼之劑로 降火하고 辛熱之劑로 救寒하나 모두 잘못된 치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胃는 腎의 關門(일반적으로 腎이 胃의 關門이 된다고 하나 陳氏는 이를 바꾸어 胃가 腎의 關門이 된다고 하였다.)이 되니 腎中之水가 有餘하면 咽喉에서 水穀을 推送하고 大腸도 潤滑해져서 吐하는 증상이 그치게 되므로 治法은 腎中之水를 大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臟腑사이의 관련성에 입각해서 병리를 설명한 것으로 陳士鐸 學說사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陰痿

陳士鐸은 『辨證錄·陰痿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人有交感之時에 忽然陰痿不舉하야 百計引之나 終不能鼓勇而戰은 人이爲命門火衰나 誰知是心氣之不足乎이 凡入房久戰不衰는 乃相火充其力也¹⁰⁾ 陰痿不舉는 自是命門火衰이니 何謂是心氣不足고 不知君火一動하면 相火翕然隨之하야 君火旺而相火又復不衰라 故能久戰不泄이라 否則君火先衰하야 不能自主면 相火卽慫慙于其旁하야 而心中無剛強之意니 包絡이 亦何能自振乎하야 故治陰痿之病은 必順上補心而下補腎이니 心腎兩旺하야 後補命門之相火면 始能起痿라 方用起陰湯이라

10) 柳長華, 상계서, p. 775

11) 柳長華, 상계서, pp. 797~798.

人參五錢 白朮一兩 巴戟天一兩 黃芪五錢 北五味子一錢 熟地一兩 肉桂一錢 遠志一錢 柏子仁一錢 山茱萸三錢이니 水煎服이라 連服四劑而陽舉矣오 再服四劑而陽旺矣오 再服四劑에 必能久戰不敗라 苟能長服至三月이면 如另換一人이니 不啻重堅一番骨이오 再造一人身也라

此方은 大補心腎之氣니 不十分去溫命門之火나 而火氣自旺이라 世人은 不識補心而生火면 則心氣既衰하야 火旺則焚心矣니 不識補腎以生火면 則腎水既虧하야 而火旺則損腎矣라 心焚而腎損이면 雖火旺이나 何益乎라 及足以燒乾陰血이면 勢必陽旺陰消니 而不可救耳라

此症에 用濟陰丸이라드 亦妙라

人參六兩 黃芪半斤 鹿茸一個 酒浸切片作小塊 粉炒 龜膏半斤 人胞一個 火焙 麥冬四兩 北五味一兩 炒棗仁三兩 遠志二兩 巴戟天半斤 肉桂三兩 白朮八兩 菟絲子一斤 半夏一兩 砂仁五錢 黃連八錢 神麩一兩이니 各爲末하야 蜜爲丸이라 每日白滾水에 送下五錢이니 服一月이면 陰舉矣오 且能善戰이라

人有精薄精冷하면 雖亦能交接이나 然半途而廢거나 惑臨門卽泄이니 人以爲命門之火衰나 誰知是脾胃之陽氣不旺乎야 夫脾胃屬土하고 土生于火니 脾胃之陽氣不旺은 仍是命門之火衰라 蓋命門之火는 乃先天之火오 脾胃之土는 乃後天之土也라 後天之土는 本生于先天之火니 先天之火不旺이면 則後天之土不能生이라 然脾胃之土가 雖屬後天이나 而其中에 未常無先天之氣라 命門之火寒하면 則脾胃先天之氣가 何能生哉리오 命門이 既不能生脾胃先天之氣면 而脾胃後天之氣가 益加衰微니 欲其氣旺而能固하야 精厚而不薄이니 烏可得乎야 治法은 必須補先天命門之火하고 更補後天脾胃之土면 則土氣既旺하고 火又不衰니 庶機氣溫精厚乎니 저 方用火土既濟丹이라

人參一兩 白朮一兩 山茱萸一兩 菟絲子一兩 山藥五錢 巴戟天一兩 肉桂一錢이니 水煎服이라 連服十劑而精厚矣오 再服十劑而精溫矣오 再服三月이면 永

不再弱이라

是方은 健脾胃之土에 仍是補命門之火니 濕氣去而精純하고 寒氣去而精暖하니 寒濕既除에 邪氣消亡而陽氣健旺이니 何至成怯弱之病哉아¹²⁾

여기서 陳氏는 陰痿症을 命門火衰가 아닌 心氣之不足과 脾胃之陽氣不旺으로 辨證하고 있으며 心氣之不足은 大補心腎之氣하여 치료하고 있고 脾胃之陽氣不旺은 먼저 補命門之火하여 健脾胃之土하는 方法을 活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消渴, 夢遺, 咳嗽, 翻胃, 陰痿 등의 병리기 전과 治療법을 살펴보면 陳士鐸은 臟腑 상호간의 관련성과 五行의 相生·相克이론을 병리를 설명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陳士鐸 학술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는 外感을 제외한 雜病의 병리기 전을 설명함에 있어 五臟을 中心으로 五行의 相生·相克과 相關關係를 다양하게 活用하고 있다.

III. 結 論

陳士鐸의 臟腑五行病理의 雜病에 五行을 運用하여 病理를 闡發한 것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士鐸은 肺金이 肝木을 克하지만 肝속에 火가 왕성하면 肺가 肝을 克하지 못하고 肝火가 克土하여 土가 피해를 받으며 다시 脾胃가 生金하지 못해 肺金이 더욱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肺가 腎水를 生하지 못해 水克火를 못해 上·中·下焦가 모두 불타오른다고 하였다.
2. 그는 肝은 疏泄을 좋아하므로 郁滯가 되면 脾胃를 克하고 脾胃가 克을 받으면 土克水하여 腎이 손상을 받아 生木하지 못하여 肝郁이 더욱 심해지며 肝鬱로 心火가 化生되지 못하고

12) 柳長華, 상계서, p. 908.

肺도 木을 克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解郁法으로 치료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3. 그는 土克水하지만 土生金, 金生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며 肺腎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여 서로 生해주며 腎의 水가 넉넉해야 水火既濟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4. 그는 心은 君火이고 有形之火니 水로써 克할 수 있지만 腎中之火는 無形之火로 水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5. 그는 命門火가 生脾土하지만 命門火가 왕성하면 生脾土하지 못하고 오히려 克土하게 되는데 이때는 직접 腎水를 補하기 보다는 肺金을 補해서 金生水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補水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6. 陳士鐸은 五臟의 病理機轉을 설명함에 있어서 五臟의 지나친 火는 相生을 相克으로 變化시키고 적당한 火는 相生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火가 不足해도 相生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다.
7. 陳士鐸은 外感을 제외한 거의 모든 雜病에 있어서 臟腑五行의 相生·相克 및 相關關係를 中心으로 病理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학술사상의 重要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參 考 文 獻

1.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編著,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1.
2. 柳長華,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4.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